

# Healing Waters

From the city's historic thermal baths to fresh food markets, Budapest is the perfect place to recharge both body and soul.

유서 깊은 온천부터 신선한 음식이 가득한 시장까지,  
부다페스트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제격인 도시다.

written by CAROLE ROSENBLAT photography by TOMISLAV MARCIJUŠ



**INCHEON**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Budapest 3 times a week.

대한항공 부다페스트 직항 편 주 3회 운항



Mystery Hotel Budapest's spa  
미스터리 호텔 부다페스트의 스파

The Pearl of the Danube, Budapest is also known as “the City of Spas,” and its thermal traditions date back to Roman times. Thermal waters bubble up from some 123 springs beneath the city. From the historic Lukács Thermal Bath to Mystery Hotel Budapest, locals and travelers alike can enjoy a relaxing soak. With city parks, green islands and hills to hike, as well as markets where you can sample the freshest of ingredients, Budapest is the perfect city destination for refreshing your body and soul.

다뉴브의 진주, 부다페스트는 ‘온천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부다페스트 온천의 역사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시 지하에 있는 123개 샘은 여전히 온천수가 솟아 나온다. 유서 깊은 루카치 온천부터 미스터리 호텔 부다페스트의 고급스러운 스파까지, 도시의 다양한 온천에서는 현지인과 여행자가 한데 몸을 담그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낸다. 도심 속 공원과 푸른 섬, 하이킹하기 좋은 언덕은 물론 신선한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시장까지. 부다페스트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에 완벽한 곳이다.

**Visiting thermal  
baths is more  
than a tradition  
in Hungary.  
It is even  
considered  
medicinal.**

헝가리에서 온천욕은  
전통 그 이상이다.



Outdoor pool of Széchenyi Thermal Bath  
세체니 온천의 야외 풀

## Go on a Spa Pilgrimage in Budapest

In Hungary, thermal baths are considered medicinal and are often prescribed by doctors. There are over 1,300 thermal springs in the country, with 123 of them in Budapest alone. Geothermal water supplies the baths throughout the city with mineral-filled water of varying temperatures. While the Romans were the first to build bathhouses in Budapest, it was the Ottomans who developed them into hammam-style baths, as seen in the city's current bath architecture.

You don't have to venture far from the city center to enjoy Budapest's thermal springs. Located at the foot of historic Gellért Hill, in the center of the Buda District and just west of the Danube River, the Rudas Thermal Bath dates back to the 16<sup>th</sup> century. On weekends, there's coed bathing all day, with guests required to wear bathing suits. On weekdays, there are often men-only and women-only hours. The facility has a rooftop pool with a view of the Danube, plus a 450-year-old Turkish bath in the basement.

Head to the southeastern end of Gellért Hill and you'll find the Gellért Thermal Bath, built in the early 20<sup>th</sup>

### 부다페스트 온천 순례 떠나기

헝가리에서 온천욕은 전통 그 이상이다. 온천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의사가 환자에게 온천욕을 처방하기도 한다. 헝가리에는 온천수가 솟아나는 샘이 1300개가 넘고, 부다페스트에만 123개 샘이 있다. 다뉴브강 석회암 단층을 따라 다양한 온도의 온천수가 솟아 나온다. 부다페스트에 처음 온천이 들어선 것은 로마시대지만, 오늘날 부다페스트 온천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키탕 양식으로 발전시킨 건 오스만제국 때다.

다뉴브강 서편 강둑, 부다 지역의 겔레르트 힐 기슭에 자리한 루더시 온천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뉴브강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톱 수영장은 물론, 지하에는 4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터키탕이 자리한다. 어두운 조명 속, 유황 냄새 물씬 풍기는 습한 공기에 젖어들다 보면, 색유리 타일로 장식한 높은 돔형 천장 아래에서 목욕을 즐겼을 오스만제국 사람들이 눈앞에 그려진다. 메인 욕탕 주변으로 다채로운 작은 욕탕 4개가, 1층에는 현대적인 욕탕 여러 개가 들어서 있다.

겔레르트 힐 남동쪽 끝으로 향하면 20세기 초반 지은 겔레르트 온천을 만난다. 100년 된 아르누보 양식 건물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곳은 다양한 온천과 일반 수영장 외에 세계 최초의 파도 풀을 갖췄다. 대부분의 부



1. Bródy Sándor utca, in the Palace District, has well-preserved historic architecture.

펠러체 지구의 오래된 거리, 브로지 선도르 우트처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다.

2. The neo-Baroque details add to the old-world ambiance of the Széchenyi Thermal Bath.

세체니 온천의 신바로크 양식 실내는 고풍스러운 매력을 더한다.



century. The Art Nouveau building is a beauty to behold. It has a variety of thermal pools, a regular swimming pool and one of the world's first wave pools. A unique feature of this bath is a salt chamber designed to soothe your lungs and your soul.

Located in the Pest District, east of the Danube, the Széchenyi Thermal Bath is one of the largest hot spring spa complexes in Europe. It opened in Budapest's City Park in 1913. Built in neo-Baroque style, mosaics decorate the interior space, which holds multiple saunas and steam rooms as well as numerous pools of varying temperatures. Outside are a huge swimming pool, a leisure pool and a thermal pool with a variety of features. Széchenyi also offers unique beer baths and Sparty, a laser-lit dance party held at night in the outdoor pools on summer weekends.

다페스트 온천과 마찬가지로 사우나와 스팀 룸 여러 개가 들어서 있고, 이곳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폐와 영혼을 달래주는 소금방이 있다.

다뉴브강 동쪽, 페스트 지역에 자리한 세체니 온천은 1913년 부다페스트 시티 파크에 문을 연, 유럽에서 가장 큰 스파 단지 중 하나다. 내부를 모자이크로 장식한 신바로크 양식 건물에는 사우나와 스팀 룸 여러 개가 들어서 있고, 다양한 온도의 수영장을 갖췄다. 야외에는 대형 수영장, 레저 풀, 폭포·거품·기포 욕탕 등 각기 다른 특징의 온천 수영장이 자리하고 있다. 독특한 맥주 목욕탕과 더불어 여름철 주말 밤이면 댄스파티가 열리는 것도 재미있다. 부다페스트 대부분의 온천에서 마사지를 예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체니 온천이 가장 큰 마사지 시설을 보유했다. 온천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팁을 알고 가면 좋다. 부다페스트 온천은 실내의 온탕을 갖췄고, 남녀 탈의실이 따로 구비돼 있다. 대부분 온천에서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작은 탈의실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수영복, 타월 2장(목욕용과 샤워용), 플립플롭을 지참해야 하며,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수영모가 필수다. 목욕 가운을 가져가면 편리하다. 샤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샴푸와 샤워 젤을 지참하자.



Neo-Baroque architecture of Széchenyi Thermal Bath  
세체니 온천의 신바로크 양식 외관

## From City Hikes to Local Brunches

Hot springs aren't the only way to recharge and relax in Budapest. Gellért Hill is a great place to take a short hike, starting from the Gellért Thermal Bath. Head directly up toward the historic Citadel and Liberty Statue at the top. Tracing the labyrinth of paths up the hill, you'll be met with extraordinary views of this city on the Danube. Stop at the Garden of Philosophers, a wonderful place to sit and contemplate.

If you cross the Liberty Bridge, below Gellért Hill, you'll come to Central Market Hall. On Sundays, the Szimpla Farmers' Market is held in this neighborhood. Local vendors offer freshly picked produce, handmade jams and chutneys, traditional pickled foods and cured meats, as well as crafts and art. For a brunch, try a traditional Hungarian sausage sandwich.

## 도심 속 하이킹부터 현지식 브런치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웰니스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온천 외에 하이킹도 있다. 겔레르트 힐은 짧은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하이킹의 시작은 겔레르트 온천이다. 온천에서 출발해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대성당과 독립기념비가 자리한 정상까지 지름길을 택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직진하면 탁 트인 녹지를 만나게 된다. 미로 같은 오솔길을 오르며 다뉴브강 전망과 더불어 언덕 곳곳에 자리한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다. 세계 5대 종교 창시자와 영적 지도자의 동상이 늘어선 철학자의 정원에도 둘러보자. 자리에 앉아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이다. 봄여름이면 이곳에서 요가나 태극권 수업이 열린다.

겔레르트 힐에서 리버티 브리지를 건너면 센트럴 마켓 홀이 나온다. 이 근처에서 일요일마다 심플러 선데이 파머스 마켓이 열린다. 폐건물을 개조한 부다페스트의 명물 '폐허 팝'의 원조, 심플러 케르트가 주최하는 파머스 마켓이다. 지역 상인들이 갓 수확한 농작물, 수제 잼과 처트니, 전통 절임 음식과 훈제육, 빵, 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한다. 헝가리 전통 소시지 샌드위치 등으로 브런치를 즐겨보자.



Indoor pool of Gellért Thermal Bath  
겔레르트 온천의 실내 수영장

## Take the Tram

Though Budapest is extremely walkable, you'll want to take the metro, tram or bus at some point. Download the BudapestGo app to buy tickets. The UNESCO-listed Metro Line No. 1 is the oldest metro on the European mainland. Meanwhile, the No. 2 tram has been named one of the most beautiful rides in the world.

부다페스트는 걸어서 구경하기 좋지만, 때로 지하철이나 트램, 버스를 타고 싶어질 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하철 1호선은 유럽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다. 2번 트램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트램으로 꼽힌다. 부다페스트 고 앱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 Two Sides of the Same Coin

Separated by the Danube River, Buda and Pest (along with Obuda) came together 150 years ago to make the city of Budapest. Buda is the hilly, quieter area containing the castle and most of the hikes. Pest is the flatter part, where you'll find many attractions, bars and restaurants.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부다와 페스트(그리고 오부다)는 150년 전 부다페스트로 통합됐다. 부다는 고성과 산이 많은 조용한 지역이고, 페스트에는 여러 관광 명소가 자리한다.

## Additional Wellness Spots

**Normafa Park** The Buda Hills are packed with hiking opportunities. Tree-lined trails offer a peaceful escape from the city, and there's a chairlift that will take you up or down if you're worn out from hiking or are seeking a more leisurely experience.

노르머퍼 공원 부다 힐스에 자리한 노르머퍼 공원은 하이킹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가로수가 늘어진 오솔길을 걸으며 평화를 만끽하자. 하이킹을 하다 지쳤다면 리프트로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다.

**Margaret Island**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Danube, this island is a quiet escape in the middle of the city. It contains a petting zoo, Roman ruins, a circular jogging path, a swimming pool and a thermal bath. Bicycle rentals are available.

머르거레트섬 다뉴브강 한가운데 위치한 머르거레트섬은 동물원과 로마시대 유적, 섬을 한 바퀴 도는 조깅 트랙, 자전거 대여 시설, 수영장, 온천을 갖췄다.

**The Danube** A favorite fair-weather pastime among locals is going to the Danube to watch the sun set behind Buda Castle. Sit on a park bench, or enjoy a bottle of wine at a riverside restaurant. 다뉴브강 날이 좋을 때 부다페스트 사람들은 다뉴브 강변으로 향한다. 부다 캐슬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노을과 함께 강변 레스토랑에서 와인도 즐겨도 좋다.



